

아오시마 신사: 휴가 신화관

일본 신화에 따르면 창조 신화와 더불어 아마테라스오미카미가 손자를 하늘에서 불러와 천하를 다스렸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아오시마 신사의 ‘휴가 신화관’에서는 천황 가문의 가보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 휴가 신화에서 12 가지 장면을 밀랍 인형으로 재현했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휴가국(지금의 미야자키현)입니다. 8 세기 일본의 수도였던 나라에서 신화가 기록된 당시, 도읍에서 먼 남동쪽에 면하고 있던 휴가는 떠오르는 태양, 나아가 신들의 영역과 가장 가까운 장소로 여겨졌다는 이유에서 신화의 배경으로서 이곳이 선택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태양과의 연관성은 지명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에도 시대(1603 - 1867) 이전의 지역 구분인 ‘국(國)’ 중에서 ‘태양’을 의미하는 ‘日’이라는 한자가 들어간 것은 휴가(日向)가 유일했습니다.

장면 1

신들이 머무는 나라였던 다카마노하라에서 신도(神道)의 신들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태양신인 아마테라스오미카미가 손자인 니니기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마테라스오미카미는 니니기에게 지상으로 내려가 인간들을 다스릴 것을 명하며 일본의 주식(主食)이자 번영을 상징하는 벼 이삭을 건넸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3 명의 신들도 니니기에게 검, 거울, 보석으로 이루어진 3 개의 신성한 보물을 선물했습니다. 신의 지배를 의미하는 니니기의 선물들은 전설에 따라 천황 가문에 대대로 이어지며 지금의 황실에서도 소중한 보물로서 모시고 있습니다.

장면 2

하늘에서 내려온 니니기는 산신인 오야마쓰미의 딸인 고노하나사쿠야와 만나 결혼을 제안했습니다. 오야마쓰미는 결혼에 동의하면서도 고노하나사쿠야뿐만 아니라 언니인 이와나가와도 결혼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니니기는 고노하나사쿠야만을 선택하고 아름답지 않은 이와나가는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오야마쓰미는 니니기가 두 딸과 결혼했다면 영원한 행복을 손에 넣었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결국 이와나가를 거부했던 니니기는 불로불사의 삶을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니니기의 이 같은 치명적인 선택은 살아 있는 신이었던 일본의 천황이 보통의 인간과 똑같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노하나사쿠야는 곧장 세쌍둥이를 잉태하지만, 니니기는 자신의 아이라는 것을 부정했습니다. 고노하나사쿠야는 신의 아이라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상처 하나 없이 탄생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자신의 땀땀함을 증명하고자 오두막에 틀어박혀 직접 불을 질렀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대 해역에 위치한 아시아 국가들에서 행해진 의식으로 장소를 정화하고 순산을 기원하며 출산에 이용하는 건물 주변에 불을 밝히는 전통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장면 3

고노하나사쿠야와 니니기 사이에서 태어난 세 아이는 전부 남자아이였습니다. 그중에는 사냥의 달인으로 성장한 야마사치비코와 고기잡이의 명인이 된 우미사치히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야마사치비코는 두 사람의 도구를 바꿔 서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야마사치비코는 형의 낚싯바늘로 낚시를 떠났고, 우미사치히코는 사냥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마사치비코는 빌렸던 낚싯바늘을 잃어버렸고, 아무리 찾아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야마사치비코는 칼을 부러뜨려 새 낚싯바늘을 몇 개나 만들어서 건넸지만, 우미사치히코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장면 4

절망한 야마사치비코에게 시오쓰치라는 노인이 찾아와 배를 타고 해신인 와타쓰미의 궁전에서 형의 낚싯바늘을 찾으라고 조언합니다.

장면 5

해신인 와타쓰미의 궁전에 도착한 야마사치비코는 우물 옆에 있는 나무에 올랐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와타쓰미의 딸인 도요타마히메를 모시는 궁녀가 우물 물을 뜨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궁녀는 야마사치비코가 있는 것을 알아채고 도요타마에게 야마사치비코를 소개했습니다. 이윽고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와타쓰미는 야마사치비코의 혈통이 신성하다는 이유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신화에서는 야마사치비코가 올라간 나무를 ‘향기롭다’고 표현하는데, 이는 침향나무나 백단향처럼 고대 아시아에서는 향이나 약효가 뛰어나다고 알려진 나무를 가리킵니다. 또한, 도요타마를 모시는 궁녀가 가지고 있던 물병은 8 세기 당시의 일본인에게는 세계 최고의 권력자였던 중국의 황제가 사용했던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세부적인 묘사는 고귀한 신들의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장면 6

야마사치비코는 와타쓰미의 궁전에서 성대한 연회에 초대되었습니다. 야마사치비코는 훗날 두 사람을 환대하는 무용수의 뒤에 앉아있던 도요타마와 결혼하여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장면 7

와타쓰미의 궁전에서 3 년이란 세월을 보냈던 야마사치비코에게는 무언가 걱정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야마사치비코는 잃어버린 형의 낚싯바늘을 찾기 위해 바다로 왔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도요타마는 아버지에게 낚싯바늘을 찾아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장면 8

해신인 와타쓰미는 야마사치비코의 낚싯바늘을 찾기 위해 바닷속 물고기들에게 궁전으로 모이도록 명했습니다. 입을 다쳤다는 도미를 제외하고 모든 물고기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도미가 입을 다친 이유가 낚싯바늘에 걸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안 와타쓰미는 도미를 가까이 불러들였습니다.

장면 9

잃어버린 형의 낚싯바늘을 찾은 야마사치비코는 상어를 타고 육지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야마사치비코가 떠나기 전, 도요타마는 ‘곧 아이가 태어날 테니 출산을 위해 오두막을 지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작별의 인사로 와타쓰미는 야마사치비코에게 해수를 조종할 수 있는 한 쌍의 보주를 선물했습니다.

장면 10

야마사치비코는 낚싯바늘을 우미사치히코에게 돌려주려고 하지만, 우미사치히코는 이를 거절하며 야마사치비코를 위협했습니다. 이에 야마사치비코는 해신에게 받았던 보주를 사용하여 해수를 불러들이고, 우미사치히코가 물에 빠질듯한 상황에 처하자 결국에는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장면 11

야마사치비코는 부인을 위해 오두막을 짓기 시작했지만, 채 완성되기도 전에 진통이 엄습해 왔습니다. 오두막에 있던 도요타마는 야마사치비코에게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나를 보지 말아 달라’고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야마사치비코는 끝내 참지 못하고 해신의 딸인 도요타마가 거대한 상어로 변한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정체를 들켜버린 도요타마는 갓 태어난 아기를 남겨두고 슬퍼하며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아기였던 우가야후키아에즈는 도요타마의 동생인 다마요리의 손에서 자라지만, 훗날 우가야후키아에즈와 다마요리는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도요타마가 아기에게 이별을 고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바닥에 있는 검은 깃털은 야마사치비코가 제시한까지 완성하지 못했던 오두막의 지붕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것입니다. 검은 깃털은 순산에 좋은 기운을 가져다준다는 가마우지의 깃털입니다. 고대 일본에서 행해졌던 가마우지잡이는 목에 끈을 묶은 가마우지가 생선을 삼키면 어부가 삼킨 생선을 뱉어내도록 훈련합니다. 생선을 곧장 뱉어내는 가마우지의 습성에서 순산의 상징이 되었으며, 출산을 앞둔 여성의 곁에는 가마우지의 깃털을 두는 풍습이 생겨났습니다. 도요타마의 오두막 지붕 전체를

가마우지 깃털로 만들었다는 것은 신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장면 12

우가야후키아에즈와 부인인 다마요리 사이에는 4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성장한 형제들은 막내의 주도로 일본 전국을 제패하고자 길을 떠나는데, 여기서는 길을 떠나는 모습이 재현되어 있습니다. 휴가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며 수많은 적들과 싸웠던 일행은 지금의 나라현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막내가 국가를 세우며 자신을 진무 천황이라고 선언하였고, 훗날 일본의 첫 통치자가 되었습니다.